

2019 학년도 1 학기 원아시아재단 국제 세미나

「인문교양 : 아시아공동체 :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시리즈 강좌(10)

주제: 동아시아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 및 해결해야 할 과제

제 10 회 One Asia 재단 국제 세미나에서는 일본 메이조대학교(名城大學)의 이수철(李秀澈) 교수님을 모셨다. 이 교수님은 한국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으며 일본 교토대학교(京都大學)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다. 전공은 환경경제학이며 동아시아 환경 문제를 오래 지켜봐 오셨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총 다섯 가지이다. (1) 동아시아의 공기 오염 문제, (2) 동아시아의 폐기물 문제, (3) 기후변화 문제, (4) 동아시아의 핵발전 문제, (5)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서 강연 중심 내용은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아시아의 공기 오염 문제에 관한 것이다. 동아시아에 속한 국가는 중국, 대만, 일본, 한국(북한 포함)이라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 국가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운명 공동체이며 서로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몇 년 간,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배출된 공기 유해물질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광범위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PM2.5(초미세먼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PM2.5 입자(粒子)는 사람 머리카락과 넓은잎삼나무의 꽃가루보다 훨씬 더 미세하다. 사람이 그것을 장기간 흡입하면

천식이나 폐암 등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으며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중국에서 PM2.5 농도의 연평균 수치가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지만 아직 표준 수치 이하이다. 각 국가에서 PM2.5 농도를 낮추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은 동아시아 폐기물 문제이다.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과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었다. 일부 국가들은 본국에서 생산한 각종 폐기물, 즉 전자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 등을 중국이나 필리핀 등 다른 국가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종사자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국내 폐기물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기된 플라스틱 등 열한 가지 폐기물을 수입 금지품으로 정했다. 바다 플라스틱 오염물질은 각 나라가 봉착하고 있는 난제이다. 현재 일 년 동안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총량은 5 만대 점보 제트의 총량에 상응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분해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간 플라스틱병의 재활용과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의식이 점점 강해졌지만, 친환경 제품의 가격이 비싸 전통적인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는 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가 친환경 의식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어서 이 교수님께서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셨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1850 년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증했다고 하셨다. 가장 큰

문제는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에 있다. 사실상 지난 100 년 간 지구 온도가 약 0.8°C 정도 올랐다. IPCC 에서는 이번 세기에 약 4.5°C 정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훗날 인류가 이 땅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 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196 개국이 파리 협정을 체결했다. 2100 년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목표이다. 2018 년 대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에서 23 위를 차지했다.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세웠지만 일본, 유럽, 미국에 비해 대만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대만 정부는 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건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께서 동아시아의 핵발전 문제를 제기하셨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셨다. 사고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염된 물과 흙의 처리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아직까지 4 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핵발전 지도를 보면 동아시아는 전세계에서 핵발전소 밀도가 가장 높은 구역인 것이 틀림없다. 동아시아의 원전 안전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중시해야 한다.

앞의 내용을 통합해 본다면, 동아시아에 속한 국가가 협력해서 협의체를 설립하고, 동아시아의 에너지와 환경 안전에 관한 법률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같이 해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사용(Recycle)을 통해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모두 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 보호에 힘을 보탤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류유용(한국어문학과 졸업)

감수: 김선호(한국어문학과 부교수)